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채널A특집 아름다운동행 따뜻한 기업이야기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 아침뉴스 신문으로 보는 세상	50 인간극장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4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송년특집 건강하게 삽시다 3부 <재활치료>	30 아침연속극 <나라서 좋아>
9 40 눈썰미장의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50 갈매까지 가보자(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뉴스
11	00 교실이야기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전우치>(재)	00 한·베수고 20주년 특집다큐 <베트남 신부들의 가족연구>	00 SBS 생활경제 30 KBC 생활뉴스 50 SBS 12뉴스
12 00 뉴스현장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마을이야기 올랑출랑 스페셜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재)
1 20 선타목집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결작선 <브레인>(재)		10 그린실버 고령이 좋다 스페셜	00 건강클리닉
2 30 김광현의 탕탕평평	00 KBS뉴스 10 2012-2013 프로배구 <GS칼텍스 vs 현대건설>	10 시청자 기획안 공모 당선작 다큐멘터리 3일 <목심은 살아있다>(재)	00 MBC 2시 뉴스 10 MBC 파워매거진	00 세계 대기행 10 SBS뉴스 20 방학특집 애니메이션 <마법 천자문>
3 40 이언경 김진의 직언직설		00 오금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10 KBS 뉴스타임 35 알뜰달록 종이마을(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모자이크>	00 파쉬와 찰스(재) 30 TV유치원	00 뽀빠뽀 아이조아 30 안연 토토비	00 안연 자두야 2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동심 세계공화 15 뽀빠야 놀자 30 청/진/기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페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방송 전국시대	
7 20 혁신도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다 50 갈매까지 가보자 스페셜	00 KBS 뉴스7 30 특집 <다 함께 차차차>	45 일일시트콤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3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금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비타민	50 MBC 청사 51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생존 <프로로그 인간 자연과 숨쉬다>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날씨와 생활 50 송년특집 한밤의 TV 연예
9 40 뉴스A	00 KBS 뉴스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중수>
10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 드라마 <전우치>		
11 10 분노왕	00 KBS 뉴스라인 40 송년특집 심리치유 프로젝트 <엄마가 돌아왔다 제2편>	2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짝
12 2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30 만만 포청천 2012	30 KBS 뉴스 40 600회 특집 클래식 오디오세이 <클래식 오디오세이> ①:00 바른말 고운말(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김정일 금지된 과거>	35 MBC뉴스 24 ①:05 자유통실회합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55 행복한 시간, 숨	35 나이트라인 ①:00 팔팔과 영화산책(재) 30 한국의 숲 스페셜

EBS		
06:00 극한직업	<연말특집 김형규의 이빠표놀이>	14:05 함께하는 한국어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하진의 기본종은 연말모임을 위한 맛있는 제안>	14:35 배움너머
07:00 착취폭족 처경민	11:20 세계테마기행 <하늘의 땅 이스라엘 3부 고대무역길 항로루트>	14:45 영어유치원 요 기바기바
07:30 꼬마 평민 귀구	12:00 EBS 정오 뉴스	15:10 교양이 피파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역사특강	15:35 착취폭족 처경민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3:0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6:00 당동당 유치원1~3(재)
08:30 뽀뽀뽀 뽀로로	13:2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6:30 클로이의 오솔웃장(재)
08:45 출구는 골 공야	13:4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6:45 출구는 골 공야(재)
09:00 방귀대장 뽀뽀이	14:00 지식재배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09:10 디보와 노래해요		17:10 디보와 노래해요(재)
09:15 꾸비꾸비 나노리		17:15 꼬마버스 타요(재)
09:30 달려라 카카		17:30 달려라 카카(재)
09:40 클로이의 오솔웃장		17:45 뽀뽀뽀 뽀로로(재)
10:00 부모		18:00 생방송 토크 보내하니 1~4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3 수능개념 <송원희의 지구과학II>	07:00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강좌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은주샘의 필(Feel)통(通)수학 I>	07:30 EBSse 생활영어	16: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00:50 수능 길잡이 <문학>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01:40 고1 예비과정 <최은진의 수학>	08:30 대학영어 특강 강좌	17: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02:30 수능길잡이 <김규호의 기하와 벡터>	09:10 중학 예비과정 <국어I(1)>	17:20 초등개념잡기 <국어>	
03:20 " <김경현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09:50 " <영어I(1)>	17:50 문학사랑e	
04:10 " <곽정원의 수학II>	10:30 " <수학I(1)>	18:00 이이이 한국미술사1~2	
05:00 " <이한주의 수학II>	11:10 중2 예비과정 <국어>	19:20 세계의 아이들	
05:50 " <김명수의 적분과 통계>	11:50 " <영어>	20:00 원초보 중학영어	
06:40 고1 예비과정 <국어>	12:30 " <수학>	20:40 중학 개념 끝장내기 <역사>	
07:30 2013 수능길잡이 <독서>	13:20 중3 예비과정 <수학>	21:20 중급 한국어사능력 검정 시험(1)	
08:20 2013 수능개념 <장인수의 물리II>	13:50 변변한영어	22:00 중급 한국어사능력 검정 시험(2)	
09:10 " <이희나의 화학II>	14:30 끝판 초등국어 문법(1)(2)	22:40 중3 예비과정 <국어>	
10:00 " <송점석의 생명과학II>	15:10 사회가 속속!	23:20 " <영어>	
10:50 " <이한주의 수학II>	20:00 2013 수능개념 <이이영의 마법노트>	24:00 EBSse 생활영어(재)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He drinks like a fish 그는 훌쩍훌쩍 술 마시는걸 아주 좋아해	走馬看山(주마간산) 달릴 주, 말 마, 볼 간, 메 산
A : I went to a party last night with the boss. B : Did you enjoy it? A : Yeah. I had a good time. But I was really surprised at how much the boss drinks. B : I know. He drinks like a fish.	주마간산(走馬看山)이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말한다. 맹교(孟郊)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시를 지으면서 청렴하게 살던 중, 어머니의 뜻에 못 이겨 41살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였다. 하지만 자기 뜻과 달리 낙방하고 수모와 냉대만 받다가, 5년 뒤인 46살에야 겨우 급제하였다. 그는 급제하고 술좌석에서 ‘지나날 공책할 때는 자랑할 것 없더니, 오늘 아침에는 우쭐하여 생각에 거칠 것이 없어라. 봄바람에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인의 뜻을 다 보았네’라는 시를 지어 읊었다.
A : 사장님과 어젯밤 파티에 갔었어. B : 재미있었어? A : 응, 정말 재미있었지. 하지만, 사장님 주량 때문에 정말 놀랬어. B : 그렇지, 그 분은 훌쩍훌쩍 술 마시는걸 아주 좋아해.	
* 그는 담배를 빼끔빼끔 피워 댄다구. = He smokes like a chimmy. * have a good time = 재미있게 보내다.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대선 이후 연예인들 잇단 소신 발언 화제

배우 유아인 “진보의 뿌리로 돌아가야”

‘개콘’ 정태호 “수많은 정책을 지켜지길”

대선을 전후로 연예인들의 개인적 소신을 담은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로 SNS(소셜네트워커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이들의 발언은 첨예한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종종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오른다. 대중적 과급력 때문에 발언의 진의와 무관하게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배우 유아인이 대표적인 경우다. ‘잘 나가’는 20대 배우가 거침없이 소신을 담은 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유아인의 존재감이 남다르다.

평소에도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수시로 밝힌 그는 대선이 끝난 지난 21일 ‘이제 48프로의 유권자는 51프로의 유권자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아인은 이 글에서 공개적으로 야권을 겨냥하며 ‘진보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침했다.

모텔 출신 방송인 이선진의 트위터 발언도 화제가 됐다.

이선진은 23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50~60대 분들이 뽑아줬다고 해서 노인무임승차처지 서명운동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진짜 뭘 위한 진보인지 정말 진보란게 뭘지 아는 젊은이들의 발상인지. 외국에 소문날까 봐 부끄럽고 무섭다’라는 글을 게

재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응감한 녀석들’은 23일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코멘트로 화제를 모았다.

멤버 정태호는 “(‘박근혜’) 당신이 얘기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기업들을 위한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 수많은 정책을 잘 지키길 바란다”며 코미디는 개그맨에게 맡기고 나라살에 대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이 늘어난 데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 SNS가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하는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소셜테이너’의 등장과 함께 연예인의 소신 발언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해진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연예인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극도로 꺼린다. 정치적이라고 낙인 찍혀 버리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미지가 특정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은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온다. ‘응감한 녀석들’ 방송이 나간 후 ‘개그콘서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작진이 박 당선



<유아인>

인을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담은 글이 잇따랐다.

‘응감한 녀석들’의 정태호는 24일 트위터에 ‘저의 발언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PD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으로서 할 말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을 한 거지 정치적 성향은 없다”며 “이런 발언에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1월 14일 辛酉)
 子	36년생 대화의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줘야 한다. 48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60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내실을 기해야겠다. 72년생 미루지 말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84년생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04, 21	
 丑	37년생 약점을 노리는 이가 보인다. 49년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역의응답할 수 있다. 73년생 혼자서 다 하하지 한계에 이르리라. 85년생 일관성 있는 언행만이 신임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53, 10	
 寅	38년생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간절히 바라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62년생 주관이 강하다면 융통성없다는 평을 듣게 되리라. 74년생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한 큰 일이 벌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77, 61	
 卯	39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51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리라. 63년생 물질보다 심신의 평안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75년생 상당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80	
 辰	40년생 절실하게 필요한 이가 때맞추어 나타나리라. 52년생 위협 요소를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64년생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76년생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행운의 숫자 : 36, 42	
 巳	41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는 없으리라. 53년생 오랜 세월 속의 원인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겠다. 65년생 인륜의 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77년생 준비를 완전히 해 두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83, 25	
“전황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열!” ☎010-9790-8237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愛情長跑 àiqíngchángpǎo ‘오랜 연애기간’이 자랑할 꺼리인가? “愛情長跑終於跑到終點了 - 애정 장거리경기를 하다가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했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愛情 - 사랑, 長跑 - 장거리 달리기. 愛情長跑(愛情長跑) - 우린 오랜 연애 생활을 나타내는 단일 단어가 없는데 반해 중국어는 ‘사랑 마라톤’이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대학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초등학교때부터 서로 연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커플을 보면서 ‘얼마나 담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에 일부일처제가 많은 사회에서 유지되긴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자유에는 가장 부적절한 제도라고 합니다. 결정되기 이전의 자유를 못 누리고, ‘愛情長跑’하여 연애마저도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연에 위로를 보내는 것이 꼭 ‘花花公子(바람둥이)’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頭が切れている。 머리가 잘 돌아가다 A : あの學生はきはきして、ぱつと目立つね。 B : 頭が利口で人を教えれば十分を知るよ。 A : 特に、数学の方面に頭が切れている。 B : 素頼もしい學生だね。 A : 저 학생은 포듯포듯해서 두드러지는군. B : 머리가 영리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A : 특히, 수학 쪽에서 머리가 잘 돌아 가는군. B :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군. きはきする 포듯포듯하다 ぱつと目立つ 두드러지게 눈에 띄다 利口だ 영리하다. 素頼もしい 장래가 촉망되다 素惑ろしい 장래가 걱정되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키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